

## 알몸을 당당히 보여주는 여성들

《목욕하는 여자》 펴낸 박화야씨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여자 목욕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금기의 성역으로 빗장을 굳게 걸어둔 그곳을 훑쳐보고 싶은 욕망은 관음증 환자만의 몫은 아니다. 실오라기조차 걸치지 않은 여성들의 모습을 그리던 끝에 젊은 여성의 탱탱한 가슴과 쪽 빠진 다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남자들이 그릴 수 있는 상상도다. 그러나 여자 목욕탕은 젊은 여성들만의 공간은 아니다. “신화에서부터 잘못된 여성관이 오늘에 이르고 성의 상품화가 만연한 까닭에 젊은 여성들만이 여성으로 존재할 뿐, 다수의 여성들은 냉대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여성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승고한 어머니 모습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 여성 전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작가 박화야(40)씨는 사진에세이 《목욕하는 여자》(문학세계사)에서 여자 목욕탕이 바로 여성들에게 있어 해방된 공간이며, 여성들의 일생이 살아 숨쉬는 열린 공간임을 역설한다. 아무리 사회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몸으로 마주하면 같은 여성일 뿐이다. 우체통처럼 불룩한 배를 가진 여성, 술에 찌든 십대 소녀, 돈에 팔려온 러시아 접대부, 할머니가 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중년 여성, ‘구찌이모’와 ‘전대이모’, 그리고 ‘썰순이모’와 ‘뉘시이모’ 모두가 같은 여성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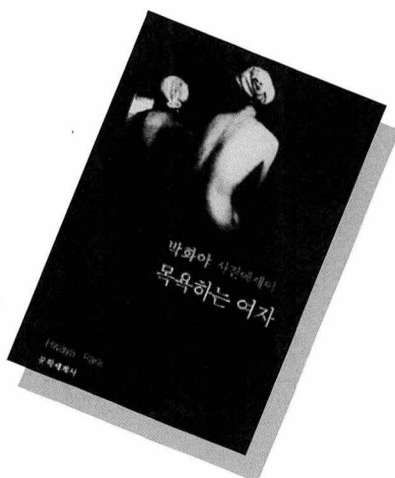
일상으로 드나드는 여성들과 친밀해지면서 그녀는 목욕탕에서 여성의 또다른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알몸으로 부대끼는 만큼 온갖 가식도 허울도 수포처럼 녹아났다. 일년 육개월 동안 목욕탕을 드나들던 어느날 선이 굵은 여성의 알몸 사진을 보여준 것이 계기가 되어 카메라를 들었고, 이미 동화된 여성들도 카메라 앞에서 꺼릴 것이 없었다. “사진작업은 그곳에 있는 모든 여성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진솔한 모습을 담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성들만의 해방된 공간에서 열린 세상으로의 비상을 꿈꾸는 셈이지요.”

그녀와 피사체로 가까이 동참했던 이들이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정직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들의 알몸은 그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이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여성의 가치를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과 함께 하는 감칠 맛나는 산문들 또한 사려 깊은 여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늦깎이로 사진을 시작했지만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단상의 꼬리를 결코 놓지 않는 집념을 보여준 그녀는 《여자이야기》 시리즈 작업을 계속할 작정이다. 통일된 맥락 속에서의 진실함과 사회·문화적 메시지가 녹아든 작업 또한 이어갈 생각이다.

— 오완진 기자



## 전통미술의 숨결 되살리기

《한권으로 보는 한국미술사 101장면》 펴낸 임두빈씨

“미술사는 예술작품의 미적 진실을 역사의 지층에서 해방시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의 미술사는 딱딱한 옛 용어와 형식적 분석으로 진실의 온기를 차가운 언어의 감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감히’ 오늘의 시각과 언어로 우리의 미술품들에 덮여썩워졌던 각질의 허위를 벗기고 생명의 빛을 되찾아주겠다고 나선 미술평론가 임두빈씨(44). 5년의 각고 끝에 펴낸 《한권으로 보는 한국미술사 101장면》(가람기획)에는 선사시대 소박한 원시의 생명력이 넘치는 〈반구대 암각화〉부터 1950년대 추상표현주의 화가 최영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한국미술 5천년의 역사가 극채색의 향기를 내뿜고 있다.

18년간 상명여대·경희대·건국대 등에서 미술사를 강의하면서 한국미술사를 새롭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93년.

이때부터 답사라는 이름의 ‘유물사냥’이 시작되었다. 지프로 비포장도로를 질주하면서 기록을 뒤적이고 사진의 셔터를 눌렀다. 낮과 다른 유물의 변신을 엿보기 위해 밤에 범주사 경내를 어슬렁거리다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기도 했다. 언어와 영상이 전하지 못하는 현장의 독특한 분위기와 느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구를 꺼내 펜화와 수채화, 파스텔화도 그렸다.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집필하는 데만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서술원칙을 세웠죠. 즉, 선입관에서 벗어나 예술적 가치를 규명할 것, 옛 미술품 속에 새로운 시대의 미적인 가치가 내장되어 있음을

밝힐 것, 한국미술사를 근현대까지 포괄해 역사의 연속성을 부여할 것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불화는 미적 가치보다는 그 도상의 내용만이 중요하다는 미술사학자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그 속에 최대한의 예술적 능력이 들어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고, 정통회화에서 소외되었던 민화의 가치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또한 예술적 직관력과 함께 역사와 시대에 관한 지식을 균형 있게 서술했다.

“한국미술은 시대마다 역사와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형식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 작품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미술에는 인위적인 꾸밈보다는 자연주의적 아름다움이 살아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량상의 제한 때문에 미처 조망되지 못한 작품까지 포함시켜 한국미술에 흐르는 정신사적 흐름을 천착해갈 생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한 한국적 미학사상을 체계화하는 데 나머지 생애를 바치겠다”는 꿈도 다져두었다.

— 박천홍 기자





# 사진을 가르치는 사진이야기

《박주석의 사진이야기》 펴낸 박주석씨

이제 '사진'은 예술의 한 장르나 특별한 매체라기보다 일상적인 삶의 조건으로 자리잡았다. 현대의 정보는 대개 사진영상의 형태로 제공되고, 그 절대량 역시 어마어마하다. 그것이 사진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케이블 TV로 방영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박주석의 사진이야기》(눈빛)는 사진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미지가 중요한 의사소통수단이 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대응능력이 없습니다.”

언어교육을 통해 행간을 읽을 수 있게 되듯 사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진정보는 무차별적인 세뇌나 다름없다. 박주석씨(38, 광주대 사진학과 조교수)는 사진의 탄생과 그 역사를 살핌으로써 사진의 어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사진은 환영(illusion)입니다. 작가의 감정·정서가 개입된, 작가의 의도된 의지에 불과합니다.”

사진은 곧 사실이라는 믿음, 그에 따라 사진가는 사실의 기록자로 객관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된 선(善)은 사진의 역사를 통해 허구임이 밝혀진다. 초상사진·저널리즘 사진·다큐멘터리 사진 등 초기 사진은 사실을 보고 복제하는, '발견의 예술'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듯 보인다. 하지만 크리미아 전쟁을 기록한 로저 펜튼의 사진과 남북전쟁을 찍은 티모시 오설리반의 사진을 비교하면 사진이 출생부터 '환영'의 운명임을 알 수 있다.

“본국의 군인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찍은 사진은 부상당한 병사조차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반면 오설리반의 사진은 전쟁의 참혹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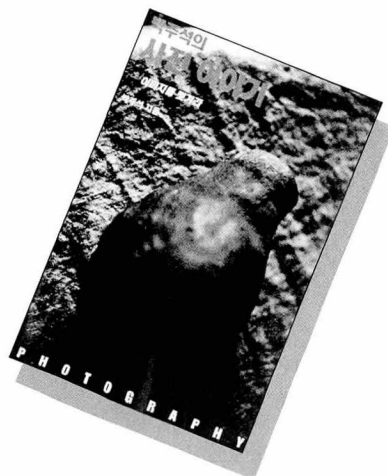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제3세계를 찍는 서구인의

눈은 그들의 초라한 웃과 비굴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만, 브라질 출신의 세바스티오 살가도는 밝고 힘이 넘치는 제3세계의 긍정적인 얼굴을 본다. 사진에 주관적 관점이 개입되고, 나아가 사실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 사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기술 조작이 이뤄지고, 대상을 왜곡시킨 사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가의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의 생산주체는 자본이지만 행위주체는 사진이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는 저널리즘·광고사진보다 다큐멘터리·예술사진에 호의를 가진다. 대학교 4학년 때 좋은 사진작가가 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 사진이론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동안 친했던 문자매체를 이용해 사진과 대중을 만나게 하는 작업에 의미를 둔다. 특히 한국 사진사에 관심을 뒤 이번 책에서도 한국의 사진가들을 많이 소개한 박주석씨는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올 가을 예술의 전당에서 여는 '한국사진역사전'을 준비하고 있다.

— 이현주 기자



부도! 요즘 어려운 출판 유통 시장!

# 사장님! 힘내세요.



“  
포인트라인  
만나면  
즐겁습니다.  
”



출판미술전문회사 POINT LINE

불황을 이기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라인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일곱명과 우수 디자이너 다섯명 그리고 연구 기획하는 아이디어맨 세명으로 구성된 색다른 눈을 가진 그러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부에서는 종이입체 일러스트, 파스텔화, 지점토, 유화 및 기타의 기법으로 작업을 해왔으며, 픽처북, 표지, 카렌다, 카드, 각종 참고서, 교과서, 학습지, 스토리북 등 기타 어떤 일러스트도 소화해 내는 국내 유일의 팀입니다. 광고 디자인부는 사보편집 기획부터 단행본, 카달로그, 리플렛, 신문 잡지광고, 표지디자인, 브로슈어, 포스터 및 C.I.P 등을 하고 있으며 연구기획실에서는 일반 단행본 기획, 유아도서 기획, 학습지 개발, 유치원 교재 개발까지 지난 15년간 항상 앞서가는 기획을 하려고 노력 해 왔습니다. 출판 미술 전문 집단 포인트라인은 앞으로 최고만을 고집 하며 한국 출판사의 자존심을 지키며 세계 여러나라 출판사와 당당히 겨뤄 자랑스런

포인트라인이 되겠습니다.  
지켜 보십시오!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 31 한일빌딩3층  
전화 02)928-3491~3 • 팩스 02)926-2246